

## 사무엘상 25장 12-19절 말씀

②

- 12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 
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
- 13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 
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 
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사백 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 
이백 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
- 14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 
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 
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
- 15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 
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 
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
- 16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 
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
- 17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 
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 
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
- 18 아비가일이 급히 떡 이백 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 
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스아와  
건포도 백 송이와 무화과 뭉치 이백 개를 가져다가  
나귀들에게 싣고
- 19 소년들에게 이르되  
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 
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